

아하렌의 하마우리(도카시키키)

‘해변으로 내려가다’라는 뜻의 오키나와 말인 하마우리는 음력 3 월 3 일에 열리는 여성들의 제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여성은 이날에 해변으로 내려가 바다에 몸을 담가 몸을 정결히 함으로써 건강을 빌고 병을 치유합니다. 이 제사는 아카마타(붉은 반점이 있는 중간 크기의 뱀. 섬에 따라서는 독사인 반시뱀을 먹는다고도 한다)가 인간으로 변한 요괴의 자식을 가진 고귀한 여성이 바다에 몸을 담가 그 아이를 유산시켰다는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DESIGNER: Build in this link to Akatama

<http://www.vill.tokashiki.okinawa.jp/gaiyou/gaiyo/minwa/アカマターと浜下り> (はまおり)

아하렌의 하마우리는 오키나와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축제와는 다릅니다. 아하렌 해변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대신에 지역 여성들은 배를 타고 수백 미터 떨어진 먼바다의 무인도인 하나리지마 섬으로 건너갑니다. 이 관습은 노로인 진베의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진베는 슈리성에서 구메지마 섬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하나리지마 섬으로 피난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 고명한 손님을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해 섬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DESIGNER: Build in this link to Hamauri

<http://www.vill.tokashiki.okinawa.jp/gaiyou/gaiyo/minwa/君南風と浜下り>

예전에는 여성만 이 행사에 참가해 하나리지마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도착하면 여성들은 기도를 외고 남성들이 준비한 생선회를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하마우리의 종교적 의미는 시대와 더불어 점점 열려져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기도는 잊히고 남성과 외부 사람들까지 참가하게 되어 가족이 즐기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배로 만(灣)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어부들이 늘어놓은 큰 냄비에 담긴 생선국이나 오징어국을 먹으며 소풍을 즐깁니다.